

# 국어 영역

7회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행복은 쟁취하는 거라서**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내부 사유를 외화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언어 처리와 기계 번역이 급속도로 진보함에 따라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언어가 단순히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부호 체계인지, 혹은 사고와 분리 불가능한 정체성의 근간인지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언어에 대한 논의가 재사유되고 그것의 의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언어학자인 촘스키는 언어 능력을 인간만이 지닌 보편 문법으로 설명하며, 언어가 생득적이며 자율적인 체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가 내면적으로 복잡한 규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언어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논리적인 문장을 무한히 생성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언어는, 사고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언어 구사의 내부 구조는 인간의 뇌가 본질적으로 발현해 내는 것이므로 기계가 그대로 모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근의 통계적 AI 언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언어 표면의 패턴 학습만으로도 정교한 번역과 문장 생성을 수행하지만, 그것이 언어 구사의 내부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베르니케는 언어가 단순한 문자나 음성 신호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해당 사회가 축적해 온 역사나 문화적 유산이 체화되어 있으며 인간의 어휘 선택과 표현 방식, 언어의 맥락 등의 언어 내부에 이러한 가치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언어사회학자인 그는 “동일한 낱말이라도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함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언어적 의미가 맥락적·상호작용적 차원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언어의 맥락 의존성은 고도의 계산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이라 해도 단순한 확률적 계산만으로는 해석해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문화권마다 상징적으로 공유되는 관념이나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언어 사용자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외부에서 보면 비직관적인 암묵 지식으로 남기 마련인 것이다.

언어가 사고와 상호 작용하여 인간의 정체성까지 결정짓는다는 관점도 살펴볼 수 있다. 위프의 언어 상대성 가설은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가 해당 언어 구조의 틀에 맞추어 현실을 지각하고 사고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적 위치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적 범주가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을 인식함에도, 각각 다른 논리적 체계로 세계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외부 대상을 단순히 묘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양상을 결정짓는 주된 틀로써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적 틀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의 언어 모델들은 인간 화자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여 확률적으로 최적 문장을 생성해 낸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간 화자가 지닌 사고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 화자의 정체성과 삶의 맥락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계가 산출하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심층에는 의식적 체험이나 정서적 뉘앙스가 결여되

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의 주요 특징들을 열거한 뒤, 각각이 갖는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언어에 대한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언어의 본질을 둘러싼 관점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새롭게 제시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④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언어에 대한 이론들이 상호 배타적임을 강조한 뒤, 그러한 이론들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가 생득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인공지능이 언어 표면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정확히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언어가 내면적으로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은, 언어의 복잡한 규칙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계는 논리적인 문장을 무한히 생성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겠군.
- ③ 개인의 언어에 사회적 가치가 체화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은, 언어의 맥락 의존성을 인공지능의 계산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겠군.
- ④ 언어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입장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공지능들은 동일한 현상을 지각할 때 다른 묘상을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하겠군.
- ⑤ 동일한 낱말이 다른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인공지능이 가치체계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언어를 암묵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겠군.

3.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텍스트 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연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② 다층적인 정체성 경험을 축적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③ 인공지능은 상황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④ 텍스트 자료만으로는 사고의 결과를 묘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제공된 자료 내에서 확률적 맞춤만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연구자 A는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은 대등한 이중 언어 화자에 비해 개념 범주화 능력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두 언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숙달한 이중 언어 화자는 시간 개념을 묘사할 때 각각의 언어 범주를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단일 언어 화자는 자기가 속한 언어 체계의 시각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언어 상대성을 입증하면서도,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부 사고 범주는 언어적 틀을 넘어서 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 ① 연구자 A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부 사고 범주가 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시각은, 위프의 특정 언어 구조에 따른 논리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 ② 연구자 A의 이중 언어 화자가 단일 언어 화자보다 언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주장은, 위프의 언어의 상대성 가설과 모순된다.
- ③ 연구자 A는 단일 언어 화자가 속한 언어 체계를 쉽게 탈피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촘스키는 언어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④ 연구자 A의 이중 언어 화자가 두 언어 간 개념 범주화 능력이 혼재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약화된다는 시각은, 베르니케의 언어가 논리적 일관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 ⑤ 연구자 A의 자신의 모국어 체계가 이중 언어 환경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프의 언어 체계의 습득을 통해 사고 구조가 점차 확장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양금을 파한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중의 찬물 소리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 놀던 일이  
 저승인가 몽중인가 국은인가 천은인가  
 천애에 이 행객이 이럴 줄 알았더냐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시는 본관이 보내기로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생이 못 오리라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  
 군산월 녹의홍장 깨고나니 꿈이로다

[A]

(중략)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을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마을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쁠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네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 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 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들은 남자를 부러워 말고  
 이 내 노릇 하게 되면 그 아니 상쾌할가

[B]

- 김진형, 「북천가」-

\* 김학사: 글쓴이 자신  
 \* 무양하여: 병이나 탈이 없어

(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C]

<제3수>

내 성(性)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들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해드릴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유사한 형식의 반복을 통해 행위를 통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6.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행위를 마친 후 도착한 ‘절집’의 풍경을 보고 느낀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후세’의 사람들이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내 노릇’을 할 것을 제시한다.
- ③ [C]에서는 홀로 바라보고 있는 산에 대한 반가움이 ‘그리던 입’과 비교하여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회상대’에서 놀던 일에 대한 소회가 드러나고, [C]에서는 ‘먼 산’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기생’을 다시 못 오도록 하는 것을 통해 호화로움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고, [B]에서는 ‘구할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통해 이상이 실현되었을 때의 소감이 드러난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작가는 함경도 유배지의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과 사대부로서의 자존심, 가족과의 재회를 작품에 담아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풍류와 흥취를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관철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는 유배를 마친 후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한 흥취를 담고 있는 시조인데, 화자는 이러한 흥취를 다양한 소재와 연결 지어 부각하고 있다.

- ① (가)는 ‘선비’를 데리고 ‘시 짓고 술 마시’는 모습을 통해 유배 중임에도 흥취를 잃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② (나)는 ‘강산’에서 노는 것이 ‘님군 은혜’임을 강조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하는군.
- ③ (가)는 자연을 즐기는 삶을 ‘천고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나)는 ‘인간 만사’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고향’의 풍경에 대한 소회와 ‘어린’ 자식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나)는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것의 이유가 ‘내 성’ 때문임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청산이 글 되’고 ‘녹수는 그림 되’는 것을 통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나)는 ‘하늘’이 화자에게 ‘다만’ ‘강산’을 지키라 한 것을 통해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군.